

##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을 끝맺으면서

본 학회의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를 위하여 1월에 준비위원장으로 이서봉회장, 준비부위원장으로 성용길교수, 실무위원으로 최길영박사, 기념강연 준비위원으로 이광섭교수, 특집호 편집위원으로 이후성교수, 특집호 발간 및 운영위원으로 김동국교수로 구성된 “한국고분자학회 창립 2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회”가 발족되었다. 본 준비위원회의 목적은 본 학회의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2년 전부터 준비하여온 IUPAC Macro Seoul '96을 성공리에 개최하기 위한 학회의 원활한 지원, 창립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국제적인 강연회 개최, 창립 20주년 기념특집호 발간, 학회는 문지와 각종 교육세미나 교재 등의 정보화사업에 있었다.

첫 번째 행사로서 8월 4일부터 9일까지 인터콘티넨털 호텔에서 IUPAC Macro Seoul '96이 김은영박사 주관으로 국내외 저명 과학자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리에 개최되었다. 첫 날에는 진정일 교수가 사회를 보고 각국 고분자학회 회장들이 참석한 Polymer Summit Meeting에서 이서봉회장의 환영사에 이어서 각국 고분자학회의 현황과 학회간의 국제협력문제가 토의되었는데 회원수로 보면 미국, 일본에 이어 세 번째였으며 다른 학회에 비해서 젊은 박사층이 두터워서 질적으로 머지않아 세계적인 학회로 부상할 것으로 생각되어 가슴이 뿌듯하였다.

창립 20주년 기념강연회는 추계 총회와 분리하여 진행하는 문제가 잠깐 언급이 되었으나 올해에 화학분야에 행사가 많아 추계 총회와 함께 한남대학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다. 기간은 처음에 3일간으로 결정되었다가 회원들의 장기간 출장이 어렵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시되어 이틀로 줄이고 학생논문 발표는 포스터로 돌려서 해결하기로 하였다.

10월 11일에 개최된 “창립 20주년 기념강연회”는 성용길교수의 사회로 회장님 개회사에 이어서 심정섭 전임회장, 김세열 한남대총장, Kamachi 일본고분자학회회장, English 미국분과회장, Wang 중국고분자학회회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오전에 회장들의 기조연설, 오후에 일본학자 10명과 본회원 11명이 세 분야로 나뉘어 강연회가 진행되었다. 저녁에는 유성호텔에서 기념연회가 있었는데 회장님 인사말에 이어서 김점식 전회장, Imanish교수 및 김수철대학원장의 축사가 있었으며 식사 중에는 성악가의 독창이 있어서 연회의 분위기를 우아하게 하였으며 특히 이광섭교수의 매끄러운 사회 솜씨가 돋보였다. 특히 회장님의 초청으로 많은 전임회장님들이 참석하여 주셔서 회원들에게 감명을 주었으며 이러한 일이 정례화되어 우리 학회의 전통이 되었으면 한다.

강연회를 준비하면서 발생한 예상하지 못하였던 일들을 언급하면 우선 중국이 적성국가인 관계로 중국회장의 비자를 발급받기 위하여 과학재단에 전화하였으나, 법무부로 미루어서 그곳으로 연락하니 중국회장의 증명서 사본 등 여러 가지 서류를 요구하여 할 수 없이 북경 대사관 담당자와 의논하여 화학연구소에서 초청하는 형식으로 처리하였으나 Wang교수와의 전화와 FAX의 연결이 매우 어려워 편지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Wang교수가 김포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사무처리를 담당한 이광섭교수를 포함한 우리를 불안하게 하였다. 또한 강연회 기간이 우연히 일본의 연휴기간과 겹쳐서 초청한 일본인들의 비행기표를 학회에서 구하기가 불가능하여 회장님께 부탁하였다. 한국화학연구소의 총무과장께 매일 전화로 비행기표 예약을 독려했었지만 Fukuoka에서 출발하는 Kajiyama교수의 비행기를 예약하지 못하여 다른 도시에서 갈아 타고 오도록 조치하였다.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 것도 모르고 일본측에서는 갑자기 여행 일정을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여 이것을 재조정하느라고 임승순교수가 곤란을 겪었다.

강연회의 시작은 10시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일정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총회가 토요일로 채워질 수 있을런지 간사들이 많이 걱정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남대학, 충남대학과 전북대학의 학생회원을 특별히 일찍 오도록 부탁을 하였으나 9시가 되어도 많은 자리가 비어 있었다. 다행히 회장단의 총장 방문이 예정보다 지체되어 강연회는 약간 늦게 시작되었다. 덕분에 회원들도 더 많이 등록하였고 회장님이 개회사를 하는 동안 이종문교수가 버스 가득 학생들을 태우고 도착하여 위기를 넘겼다. 이종문교수께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외국 발표자의 강연 이후의 일정과 관광을 이명훈교수와 채규호교수가 맡아서 수고하느라고 추계학회에 참석을 못하게 되어 죄송하였다. 성용길부회장이 귀경길에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전파되었지만 가벼운 부상만 당하신 것은 학회의 행운이었다. 많은 회원이 궁금해 하는 발표자 선정은 연구업적이 많으나 발표기회가 적었던 회원과 지역안배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창립 20주년 기념특집호에는 국내외 저명 인사의 축하 편지와 20년간 학회의 모든 운영 및 통계자료가 수록되어 있

으며 임승순교수가 수고하여 6월13일과 14일에 유성 홍인장에서 개최된 “창립 20주년 기념토론회”에서는 21세기의 고분자 산업의 R & D 전략, 산학연의 분담역할, 환경산업과 폐플라스틱처리문제에 관하여 열띤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이 내용을 녹취하여 특집호 기사화하는데 김진환교수의 노고가 많았다. 특집호 발간에는 이후성교수와 박수영교수가 수고하였으며 특히 박수영교수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준비한 “고분자 연구인명록”은 내년초에 배포될 예정이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취지를 설명하고 학회지에 공고를 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설문지가 너무 적게 접수되어 250명 밖에 수록을 못하게 되었다. 2-3년 후에 다시 개정하게 되면 훌륭한 인명록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정보화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기념사업으로 예주이미지에 의뢰하여 20년간 발간한 모든 논문과 교육프로그램의 교재를 CD-ROM TITLE화하는 작업을 추계총회 전에 끝내고 판매에 들어 갔다. 이러한 결과로 과거에 누가 어떠한 내용으로 논문을 발표하였는지를 쉽게 검색할 수 있어서 논문을 인용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앞으로는 제목뿐 아니라 내용도 검색할 수 있도록 key word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창립 20주년 기념사업은 여러 회사의 협찬으로 큰 어려움이 없이 끝낼 수 있었다. 후원사로는 금호석유화학, 동양화학, 동진화성, 삼양사, SKC, LG화학, 유공, 제일모직, 제일합섬, 유공옥시케미칼, 한국화학연구소, 한화종합화학, 동양나이론, 대림산업이며 이들 회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무엇보다도 헌신적으로 기념사업을 도와주신 이광섭교수, 임승순교수, 최길영박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전무이사 김동국〉

